

김주일이 흐리고 더러운 밤을 꿰고 오직 맑고 깨끗한 것을 배워 깊은 뜻을 건너 돌아오지 않고, 의지함을 버리고 행함을 고쳐 다시는 쾌락에 몰리지 않으면 육신이 곱어져 근심이 없을 것이다. (법구경·방일품 196절)

東大新聞

과년 곳: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흥시 경주 권동3725
☎ 280-3491~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 770-2057

동국 100년 열린 교육 다짐

동문·불교계 등 후원 2백억 기금 확보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통해 '동국'은 하나됨을 확인했다.(사진은 좌로부터 최형우의원, 황명수 총동창회장, 송원주 총무원장, 오복원이사장, 송석구 총장.)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송원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등 내외인사 2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전명하고, 비전 현실화를 위한 열정과 관심을 유도하며 전 동국가족의 일체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킨 이번 행사는 2006년, 동국 1백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 시켰다. MBC아나운서 최창섭(경향74쪽) 동문과 92년도 니스코리아 유야영

(연영4)양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1부행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등 내외귀빈 축사, 경과보고, 비전! 동국100년 영상발표, 동국100년 사업계획발표, 사후서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2부행사는 코미디언 김형관(국교85년졸) 동문의 사회로 만찬, 초청가수 현철 김지애 김영일 하준화 공연, 동문과의 대화, 약정총액 발표 등의 순서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동국발전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 이번 행사로 73억여원의 기금이 모금되었다.

이로서 개교백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훈·선학)에 기획된 발전기금 역수는 2백여억원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인사로는 최형우(국회의원)동문을 비롯해 최재구 전 동국학원이사, 정재각, 황수영, 서문각, 신국주 전 총장, 조계종총무원장 회광스님, 최보사조실석주스님, 현소환 연합통신사장, 박익주 총동창회회장, 박준형(주)신라교역 회장, 홍봉래(주)협성대 대표이사, 박완원 전국불교신도회 회장, 이길녀 길병원 이사장 등이었다.

2학기수강신청 12일부터

파행 운영 최소화 방침

9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이번 수강신청에서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96학년도 2학기부터 1학년 대상 교과목을 신청한 2, 3, 4학년 재학생도 성적 상대 평가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부분이다. 올 신입생들부터 성적평가에 있어서 상대평가제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의 한 관계자는 "1학기때는 학부제 실시 및 전과, 편입학 제도가 확대되면서 강의 듣는 학생이나 진행하는 교수나 수업진행에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강의가 분반되고, 뒤늦게 강사진을 섭외하느라 실질적인 수업이 늦어지고, 적절한 강의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물러다니는 등의 사태가 빈번했다"고 말하며 "이에 교무처는 지난 5월2일 입학학과를 대상으로 강의선호도 조사를 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4백명 이상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파행적 운영을 2학기 때는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 또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기간내에 해주어야 미리 강좌수도 적절하게 조정하고 여타 제반조건을 갖출 수 있다"며 "신청기간 안에 수강신청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종합강의 시간표는 오는 10일 배부될 예정이다.

신임 교직원 수련법회

오는 28일 직지사

신임교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련법회가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주최로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직지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산내암자 순례, 기보의식, 1백8강회, 참선, 대중공양 등이 계획된 이번 행사에는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이법산 정각원장이 참석해 '동국인, 불교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특강·설법한다.

안중철 정각원 법사는 "수련회를 통해 신임 교직원들이 견학이념에 대한 확실한 이론과 신념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해외연수

미시간주립대에서 3주간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3주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교직원 10명에 한해 미시간 주립대에서 이루어지며, 인사·교무·학생관련 행정업무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학술교류부 한 관계자는 "작년 같은 경우 메인 주립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교직원의 경험확대 뿐만 아니라 자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과 장운 계장은 외국의 기금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장기

연수를 받는다. 장소는 단기 교직원 연수와 같다.

공안행정 학술회의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이상현·경찰행정학 본교교수)는 5차학술회의를 학술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는 8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미국·일본·한국 학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이라는 3가지 주제로 1시30분부터 7시까지 Dae H. Chang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교수의 발표·토론으로 진행된다.

이관희교수(경찰대학교)가 사회를 맡는 이번 학술회의는 일반학생의 참가도 가능하다.

사격부, 대학부 단체우승

제12회 회장기 전국대회

사격부(코치=김태호·학생과)는 지난달 15일에서 20일까지 치러진 '제12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소규모 부서의 남자대학부 단체우승을 차지하는 등 다수의 상을 휩쓸었다.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소총=단체3위-이규용(사

제2), 김동영(관경3), 김정환(사체1), 이승훈(사체1) △소규모복사=단체우승(남자대학부), 개인3위-이규용(사체2) △소규모 소총3차=단체우승, 개인2위-김정환(사체1) △센타화이어관총=개인 3위-최시운(경상학부1)

보리수

일체유심론

도대체 사람들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이 부리는 능력에 따른다고 설명하는 용어로서 불교의 '일체유심조'를 들 수 있다. 흔히 들어온 말이지만 참으로 그렇다고 공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를 것이다. 최근에 읽은 한책에서 그 일체유심조를 입증한다고 보여지는 사례들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한다.

미국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몸의 질병을 정신력으로 치료한 경험들을 모아 보여준 뒤에 'The heart of healing'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간한 것이다. 그 내용 가운데는, 한 부인이 암 선고를 받고 치유의 가능성이 없어서 병원을 나온 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증병을 완치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한 곳을 정하여 적정처(寂靜處)로 삼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 장소로 찾아 고요히 마음을 다스렸다. 주로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마음 속에 그려놓고 그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나는 건강하다"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은 경지에서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되었는지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녀의 병세가 위독하여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운 올바른 뜻의 충실한 성취를 위해서는 어디든 정정처를 마련하고 이 마음이 순일해지도록 거듭 거듭 다스려가야 할 일인 것이다.

일할 때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원한다면, 참으로 바랄만한 변화를 얻고자 한다면 그 뜻과 마음의 움직이는 바를 우선 통찰해야 하는 것이다.

요사이 혹 누구를 만나 인사를 나눌때, '바쁘지 않다'는 사람을 찾아볼수가 없다. 모두가 분주히 돌아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자신의 생활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분주한 마음부터 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 세간적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그 실과 좌절을 말하기에 앞서 다시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분주한 마음부터 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 세간적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그 실과 좌절을 말하기에 앞서 다시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진정한 마음으로 임하였던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목표와 일에 대한 평생의 맑은 마음으로 거창하게 내세웠지만 실제 속뜻, 속마음은 거기에 두지도 않아 빈말이었거나 헛약속인 경우는 아니었던가. 일의 결과는 그 헛되고 분주하기만 한 속마음을 따라 맺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봉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경주캠 총학, 고속전철 전면 반대

교수회·지역주민은 우회노선 지지해

경주고속전철의 논란을 둘러싸고 본교에서도 교수회와 불자교수회 그리고 경주캠퍼스 총학생회가 각각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16일 불자교수회에 이어 교수회에서는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안의 '고속전철 우회노선 지지'로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나 불자교수회에서는 "현재 고속전철의 전면반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지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이는 경주발전과 문화재보존원칙에 부합되는 최선안이라 밝히며 불자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역사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 보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경주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회노선을 지지하는 이들은 건철을 경유하는 우회노선으로 그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고속전철 전면 반대보다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총학생회에서는 고속전철 전면반대로 입장을 굳힌 상태다.

총학생회장 장재봉(사복4)군은 "울산,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고속전철이 경주로 오는 것은 남적이 안간다"며 "이는 곧 천년의 고도 관광문화를 파괴하고 상업문화를 키우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회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부분은 도심 통과와 별 다를 바 없으

므로 복구할수 없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면거부해야 한다고 밝힌 교수회 및 지역주민과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총학생회는 현재 실제적인 선전활동보다는 P-C 대자보등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고, 하이텔 통신에 '경주 고속전철 반대 서명운동'을 건의한 상태에 있다.

한편 직영노선은 경주고속전철에 대한 입장을 현재까지는 명백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시민단체들중 대다수가 문화재 손실이 적고 경주발전을 위하여는 경주고속전철 우회노선을 지지하고 있어 곧 확정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개교 90주년 기념

동국미래를 확인하였습니다

동대신문사 기획광고

-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의 동참에 감사드리며 -



놀라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그 토록 뜨거운 동국사랑의 불꽃이
피어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새삼 왜 우리는 동국이 민족의 긍지이며
미래한국의 선도이어야 하는지
가슴 박차게 깨달았습니다.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동국의 미래상이
바로 우리의 정성으로 건설된다는 확신을 갖고
대학합의 압장은 다같이 불러봅시다.
동국 100년, 세계정심에서는 민족대약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후원을 거듭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랑 만드는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1번게시판이나 ID: dgress@naver.com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패기·신념 잃은 젊음 안타까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하는 것은 실제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떠한 상황도 좋은점과 나쁜점은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느 쪽을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일체유심조 전후유복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겪는 상황은 얼마든지 극락이 되고 아수라 지옥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잘못되어도 금방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많다. 20대의 젊음이 '난 되게 없다. 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며 자포자기 하는 것은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일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저 주저앉고 있고 어딘가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고 믿고 찾아보는 사람에게서는 그 방도가 실제로 보일 수 있다. 지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무너진 건물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삶의 절망을 생의 긍정적 의미로 바꾸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극한 상황속에서 씩은 물 씩은 씹은 물로 여긴 것과 그 물을 생명의수로 여긴 것은 생사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신념은 기적을 낳고 절망은 실패자를 만든다. 절망하는 것은 무안한 잠재력과 위대한 가능성을 갖는다.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패기와 신념으로 가득하다면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의 마음에 결정된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녹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지가 녹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상쾌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보일 수도 있다. 결국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조현철 (인문대 영문학과)

교훈정신 살아있는 동악 느껴

1995년 5월 나는 남경 대학 중문학과 동료 교수들과 안휘성 남부의 구화산을 관광한 적이 있다. 구화산은 중국의 저명한 불교의 성지로, 4대 불사의 하나이다. 1천여년 전 이전 신라의 왕자 김교리가 천리 길을 건너 와 이곳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산봉우리가 마치 연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 이곳에 절을 짓고 수행하여 마침내 성불하였으며, 원적 3년 뒤 스님들이 단을 열어 보니 법상(法相)이 장엄하고 육신이 썩지 않아 아직도 절하고 지방보살로 모셔두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르지만 금년 3월 나는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오게 되고, 게다가 불교에서 세운 동국 대학교에 오게 된 것이다. 생각하니 정말 깊은 인연인 듯 싶다. 비행기는 비내리는 김포 비행장에서 구름을 뚫고 날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자 나는 다소 낭패감이 들었다. 또한 비행장에 내리니 멀리서 나를 큰 소리로 부르는 이들이 있었다. 동대 중문과의 최·김교수가 배운 나온 것이다. 최·김교수는 나를 보자 "경주에 오랫동안 머물러

심했는데 당신이 기쁜 비를 몰고 온 것이다"고 축복의 말을 건넸다. 동국 대학의 교훈은 '심심·신실·자애·도세'라고 한다. 나는 동국 대학에서 정말로 이 교훈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동안 수많은 간부 교수들과 일반 교수들을 만났다. 그들이 모두 친절하게 나를 대해 주며, 이국 타향에 있어도 대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는 것은 "심심·신실·자애·도세"를 체현한 수양일 뿐 아니라, 크게는 남경대학과 중국 인민들에 대한 우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월의 경주는 새싹이 돋고 피고 날고 개나리가 온통 뒤덮여, 황금과 붉은 기운이 내 가슴에 넘친다. 나는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남경 대학의 동료인 주효양교수가 나에게 "동국 대학에 가서 가르치게 된 것은 복이라"고 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있다. 동국대의 무궁한 발전을 이 기회를 빌어 축원하는 바이다. 양석평 (인문대 중문과 교원교수)

현 문화재 '보호법'은 '파괴법' 경주 살리는 새 문화재법안 필요

어느때보다도 유난히 싱그러워 보이는 경주의 정경은 실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필자가 이 지면을 빌어 문화정책에 대해 약간의 논변을 적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뒤로 제대로 되지는 않은 문화정책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국 경주에 대한 문제이다. 이곳 경주는 비단 신라시대뿐 아니라, 이미 수천년 이전부터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거대한 문화유적이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 경주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고속철도 도심통과 및 경마장유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문화유산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세계 반방에 고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유네스코에서 경주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세계문화유적에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했을 때, 이곳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까짓게 필요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무조건적인 유치만을 고집했다. 또한 경마장을 유지하여 문화도시가 환라과 도박의 도시로 바뀌어도 시수입만 많이 벌어들이면 된다는 생각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어떻게 경주를 알고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경주를 파괴하려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경주는 한실만파도 문화재가 쏟아져나오니 예초에 개발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다른곳보다 유난히 경주에는 발흥공사(?)가 성행한다. 발흥공사란 유물이 나오게되면 공사측에서 발굴비 전액을

물어라하는 문화재법이 있기에 몰래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파괴를 자초하는 법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문화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경주의 시민들은 눈앞에 놓인 잘못된 개발에 혹해서는 아니될것이라는 말이다. 진정으로 경주를 위해서는 문화재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문화재법안이 생겨야하며,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몇해가 지나가지만 문화정책만은 문명정부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황창환 (발흥관 조교)

개교 1백주년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 시급 대학원연구실 팻말·책결상 조차 부족

1996년 올 한해가 우리 동국인에 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동양고전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개교 90주년' 미래동국을 예감한다는 포스트 무구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야말로 미래동국, 100년의 성상을 자랑하는 모습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동국인의 모습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전통적인 자기성찰을 기할 때가 바로 지금, 96년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동국의 모습을 반추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상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동국학술문화관 개관시대의 풍경이고 보면, 최소한 현재의 모습에서는 그리 희망찬 낙관이 서질 않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냉철하게 현재의 모습을 진단해보면서 개교 90주년의 이룩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거창한 기획행사가 아니라 우리 동국인의 자기 정체성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아직까지 제각각인 현재 학내주체들의 모습은 보다 신중할 제고의 여지들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힘들것이다. 학내 주체들간의 불신과 반목, 해

마다 반복되는 학교당국과 학생들과의 공방에 대한 해법을 흔히 '모두가 예전의 구태들은 과감히 벗어 버리고 자기혁신을 기하자. 그리고 반성을 통해 화합하자!'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다. 전부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충심어린 목소리가 담요로만 머물러 왔고, 결국은 해결 불가능한 체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학내 주체들 중에서 대학원 원생들은 동국학술문화관 이전시 학부학생들과 농성을 진행하면서 학교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나름의 문제제기를 한바 있었으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동국학술문화관 개관시대의 풍경이고 보면, 최소한 현재의 모습에서는 그리 희망찬 낙관이 서질 않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냉철하게 현재의 모습을 진단해보면서 개교 90주년의 이룩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거창한 기획행사가 아니라 우리 동국인의 자기 정체성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아직까지 제각각인 현재 학내주체들의 모습은 보다 신중할 제고의 여지들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힘들것이다. 학내 주체들간의 불신과 반목, 해

아온다면 아무리 개교 90주년 사업이 정당하고 그 의의가 크다고 해도 그것이 최소한 대학원 원생들에게 온전하게 비추어질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진정 '희망찬' 미래동국을 예감할 수 있는 개교 90주년이라는 96년이 되기위한 근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때이다. 박정진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동/문/칼/럼 내 탓이요



올해도 모른다. 그러나, 영리한(?)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그것을 간파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텐데, 진작에 새 길을 찾는 현명한 판단과 결행이 있어야 했다. 이제는 기억 속에 아련한 '내 탓이요'의 구호가 새삼 절실효한다. 정말 아무 것도 없어서 그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갖출 것은 웬만큼 다 갖추어 놓고 있다. 집이 있고, 자동차를 굴리면서 가끔은 외식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더 큰 집, 더 편리하고 안락한 자동차, 더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외식에 마음이 팔리다 보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만스럽다. 이를 하여 상대적 빈곤감의 소산인가 보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리는 선인(先人)들의 발음을 아예 위선이라고 치부하면서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다는 성현의 말씀 한 구절,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그 큰 가르침을 속한(俗漢)이 함부로 오인(誤引)하는 무엄함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퇴근 길에 호주머니를 점검한 결과, 만 원짜리 한데, 정지나 행정이 잘못한다고 버리는 기세는 등등하다. 사무실 근처의 골목 주점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다. 희극(戲劇)이다.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었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자기가 종사할 직업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여 보지도 않았다 는 말이다. 해야 하는 주된 업무는 무엇이고, 적성에 잘 맞을지는, 그토록 중요한 보수 체계는 어떠한가, 근무 조건은, 또 앞으로의 전망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했다. 물론, 타인이 엮어놓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 더 많

나기 학점

▶학점은 점자적으로 나야져야 하는것
▶96이! 숫자의 노예가 되지말자!
▶학점을 잡는 자가 인생을 제압한다.
▶상대 평가제로 바뀌어서 학점에 굉장한 신경 쓰인다!
▶학수고대 하면 점수와는 거리가 먼
▶학점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인생은 학점이 좌우한다.
▶포기하지 오라.
▶학점과 노력은 정비례일까?
▶이제 'A'는 지겨워, 나의 올해 목표는 늘다가 죽는 것!

할 멋진 동악의 북학생들이여, 답해 한 개피도 같이 나눠먹은 경우의 불라는 가슴.
▶학점은 인간성과 반비례
▶컨닝으로 정학급리는 무리들은 모두다...
▶말하고 싶지 않다.
▶진실보한 자본주의적 멸망
▶학점! 이제 정말 신물이 난다. 벌써 4학년 7학기동안 항상 3.0점을 휘말리며 시험기간에만 술을 먹고...
▶잘 먹고 보자. 성적표가 떨어지지 않게.
▶학점! 한번의 컨닝으로 좌지우지 되면X
▶6단법칙에 의한 무기장조 조성법. ①시험기간동안 여유만만 ②시험보러갈때 자신만만 ③시험기간동안 시험을 만만하게... 결과엔 초연→완벽한 무기장조 완성!
▶망하기로 들어가자. 같이 동참

목errick

년 6월3일부터 2학년 6월10일. 3학년 6월11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전사회가 되길 바란다. 한국화 전공 화이팅! -개미

장환이영, 형수님! 예쁜 아가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생자부 2번D

우리반 진아가 생일있네요. 축하해 주세요. -생자부 2번D

불교학과 의 슈퍼우먼 소현선배의 태어남을 경축하자! -윤호

우리의 영원한 춘매 선배님! 생일 축하드려요 -불대의 이쁜이 넷

제3회 동국 아마추어 축구대회에 전자공학과 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전자공 일동

준숙아 생일 축하하고 다음엔 꼭 분수대에 빠뜨려 줄테니 섭섭해 하지 말아라 -화공93

백상이영! 먼저 화공과 축구 준우승 축하! 그다음 형 생일 축하!! 그런데 분수에 빠진 기분은 어때요? -어느 황당한 2학년

미술학과 과제전 축하한다. 1학

동/악/광/장

20th방송제 준비하시라 수고 하셨습니다. 36, 37기 화이팅 -38수승이

현대불교미술 전시회를 멋있게 장식한 수경, 인선의 노고를 치하하며... 수고했어! 축하해... -불교 학생회일동

제4기 한총련 출범식과 서울상경투쟁을 열심히 한 사람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2 영문

전시회 준비하신 불·미 수고하셨습니다. 1주일간 밤샘 작업을 해낸 무적불미 96의 멋진 미래를 기원하며 -니 동기

인화아, 수학여행 다녀오느라 수고 많이 했다. -기미

그리고 유철아! 소개팅 잘해라. 고3이라? 동국대의 자존심을 보여다오 -선배일동

군승사관 후보생 자원자 여러분, 권투를 받습니다! -후보생회 일동

인문학부 전모군과 전모양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M

기공과 강의실을 옮깁니다. 우리모두 환영합니다. -92일동

계열이오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이인니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경미

진로family의 무사 안녕한 예 비군 훈련의 수료를 자축합니다. -이·오·박·장

세라야! 합격축하해. -선배

석목아! 신문사 수습기자 된것 축하해. -香·珠

아웃사이더의 창단을 축하합니다 -M

아웃사이더 법정학부 농구부 창단을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 계속 번창하길... -E·H·E

지현아! 생일 무지무지 축하해. -지현이를 사랑하는 emperor

희영아! 용애야! 생일 축하한다. 좋은 3학년들 보내길. -93정국

나라 많이 닦은 친구 정상희. 6월3일이 생일이에요. 생일을 아는 모든분들, 축하 많이많이 해주세요~. -학군단일동

관광정학부 96학년 김미정" 19년재생일 축하한다. -이틀언니가

6월2일 류토피야. 4일 동국음악회 공연 축하드려요. -상명대 민중노래패 '강철사랑'

온방골

진로family의 무사 안녕한 예 비군 훈련의 수료를 자축합니다. -이·오·박·장

세라야! 합격축하해. -선배

석목아! 신문사 수습기자 된것 축하해. -香·珠

아웃사이더의 창단을 축하합니다 -M

아웃사이더 법정학부 농구부 창단을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 계속 번창하길... -E·H·E

지현아! 생일 무지무지 축하해. -지현이를 사랑하는 emperor

희영아! 용애야! 생일 축하한다. 좋은 3학년들 보내길. -93정국

나라 많이 닦은 친구 정상희. 6월3일이 생일이에요. 생일을 아는 모든분들, 축하 많이많이 해주세요~. -학군단일동

관광정학부 96학년 김미정" 19년재생일 축하한다. -이틀언니가

6월2일 류토피야. 4일 동국음악회 공연 축하드려요. -상명대 민중노래패 '강철사랑'

진로family의 무사 안녕한 예 비군 훈련의 수료를 자축합니다. -이·오·박·장

세라야! 합격축하해. -선배

석목아! 신문사 수습기자 된것 축하해. -香·珠

아웃사이더의 창단을 축하합니다 -M

아웃사이더 법정학부 농구부 창단을 정말 축하해요. 앞으로 계속 번창하길... -E·H·E

지현아! 생일 무지무지 축하해. -지현이를 사랑하는 emperor

희영아! 용애야! 생일 축하한다. 좋은 3학년들 보내길. -93정국

나라 많이 닦은 친구 정상희. 6월3일이 생일이에요. 생일을 아는 모든분들, 축하 많이많이 해주세요~. -학군단일동

관광정학부 96학년 김미정" 19년재생일 축하한다. -이틀언니가

6월2일 류토피야. 4일 동국음악회 공연 축하드려요. -상명대 민중노래패 '강철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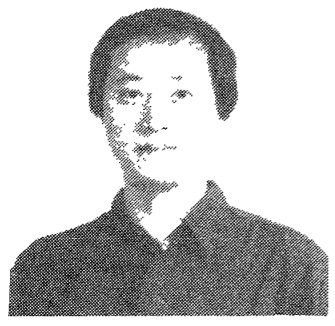
알립니다

6월21~23일 거북에서 F.T를 갑니다. 남해 육지도란 섬으로 시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G·K·H

민영에게 알립니다. 주디랑 언제 술한잔 해야죠? -광

6월3일 바로 오늘이 DKBS 15기 제1차 오디션이 있는 날이다. 힘내라! 잘! 잘하자꾸나! -157기

교육제도 개선안, 자생적 학문구조 생산에 도움되길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올해로 우리나라 대학원 역사는 1947년 최초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시작으로 50여년이 된다. 그동안 대학원은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히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급속히 팽창하였다. 1965년과 1995년 사이 30년 동안에, 대학원 수는 37개에서 4백 21개로 11.4배, 대학원 학생수는 3천8백42명에서 1만2천7백28명으로 29.2배로 증가하였다. 그야말로 '눈부신'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이룩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대학원 교육은 교수요원의 재생산, 전문 고등인력의 양성, 대학교육 이후 계속교육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현행 대학원설치기준에는 학사학위과정 학생정원수에 따라 대학교원 확보기준을 정하고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는 전일교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

시사논단 대학원 교육의 전망

정되어 있다. 교육법시행령등 교육관계법에 대학원 설치의 전일 교수 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부가 대학원 교육의 질적 관리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대학원을 양적으로 팽창시키면서도 대학원 교육을 질적으로 저하시킨 가장 큰 조건으로 작용해 왔다. 다시 말해서 특히 사립대학은 이 악한 고리를 이용하여 대학원 설립을 주로 교세확장과 학교의 재정적 확충의 도구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대학원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원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거의 마련하지 못했다. 대학원은 대학의 부수적인 장식품으로, 학교 경영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자생적 학문생산과 재생산 구조의 거의 모든 취약성이 비롯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자생적 학문(재)생산구조가 깊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학위보다 외국 학위가 관을 치고 있다. 대학들마다 일간지에 새로 채용한 교수들의 외국학위를 자랑처럼 선전하는 일들이 이제는 상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대학은 외국 학문과 학위의 식민지로 고착화된 셈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학문후속세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교육부는 95년 8월 5.31교육개혁안의 후

속 조치의 하나로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은 대학원 교육체제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해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학문중심과정의 일반대학원, 특장직업(신학, 법학, 의학, 교육학 등)과 연계된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는 전문대학원, 직장인 또는 일반 성인의 재교육 기능을 담당할 특수대학원 등으로 대학원을 다양화하려고 한다. 또 교육부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통상·외교·지역연구·디자인 분야등의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학부없는 대학원 즉 단설 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대학원을 특성화 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석·박사학위를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을 통합하는 융통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대체로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원의 기능분화는 학문·연구중심 대학, 교육중심 대학, 전문인력 양성중심 대학등 학부대학의 도식적이며 차별적인 기능분화계획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 개선안을 학력 인플레이를 조장하여 고학력 신임예비군을 양성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원 학

생의 60% 이상이 학문 연구보다는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진학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를 통한 자생적 학문(재)생산구조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원 학과당 최소의 전일교수를 확보하도록 교육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시에, 빈약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학문방식을 극복하여 통합학문적인 학제간 연구(특문 분야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된 연구영역을 만들어 내는 작업과 병행해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의 여러 학과들이 더 나아가서 여러 대학의 대학원들이 공동으로 '협동과정', '학점 상호인정제' 등을 운영하여 대학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대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연세대의 '비교문화 협동과정', 고려대의 '과학 철학 협동과정' 등은 한 대학내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대학원간 학점상호 인정제 도입을 통하여 확대하고, 여러 대학원들이 편성하는 '협동과정'도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학위의 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분화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응용학문과 순수학문, 재정부지가 많이 필요한 학문분야와 적게 필요한 학문분야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은 우리 사회 최고의 학문연구 및 지식생산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결정체제를 갖는 것은 중요하며, 더우기 그것이 기존질서에 대한 비판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미안한 민주화 투쟁'에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진보진영과 공조하기는 커녕 탄압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 안기부를 비롯한 보수·수구세력들이 자신의 존재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평가다. 개혁세력에 밀리고 있는 안기부등 수구 세력이 진보진영에 대한 선별적 탄압을 통해 위기에 몰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 상황의 특징은 김정권이 세계화나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거대담론을 형성해 진보 학생운동 진영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과 지난 94년의 공안정국과 비교해 국민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생 운동세력 내부의 반성이 요구되어 진다. (사회부)

사설

허술한 교육개혁안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95년 5월 31일 정부는 올바른 교육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교육안을 내놓았다. 흔히 말하는 '5.31교육개혁안'이 그것이다. 개혁안 발표 당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계는 물론 학생, 학부모 등 전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개혁안을 통해 고질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를 없애고 새로운 교육기풍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지옥과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대변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전국민적인 기대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열망을 가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개혁안은 발표 당시 국민들이 바랐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실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정상화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했던 종합생활기록부 시행되자마자 일부 고등학교에서의 과한 점수 올려주기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학교 현장 재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택, 교복 착용 여부, 학교운영 지원과 교직원회 등 예산결산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역시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현재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5세 아동 조기입학과 중고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 입학 허용 등 많은 제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대학가에 불기시작한 학부제 실시는 각 대학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돼 수강생의 특정과목으로의 편중, 이로인한 대형강의 축소, 또 대학자율화정책에 따른 권위주의 등으로 인한 학사 행정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본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올바른 교육으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입시제도를 비롯한 그간의 교육제도가 3년을 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행여나 이런 교개안도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도 든다.

정부는 5.31교개안에 이어 지난 2월 9일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 전문대학원 도입, 교육관계법령 개정 등 4개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좀더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개혁을 기대하며 이번 2차 개혁안을 믿어본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통국만평

강성수

9.6월 시사문제
(아래 공식을 보고 답을 고르시오)

사과 + 월드컵 + 쌀 =

① 참치 ③ 정치
② 펼쳐 ④ 총치

⑤ 많은 꼭 읽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인기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가 국보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소설을 정밀검토한 결과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세력으로 6.25전쟁을 인민 해방전쟁으로 이승만 정권을 친일집권 정부로 묘사하는 등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이 올해만 들어서 노나매, 사노매 재건위, 민민학원, 사학련, 광주 민중 정치연합, 서강대 학생수첩 사건 등 매일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지난 5월 8일 구속된 전학련 소속 회원 13명중에는 본교의 손영우(사회96총), 박노현(사학사) 동문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5월 한달 사이에 무려 다섯 차례나 이루어진 정부의 이같은 발표들은 국가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마련됐다는 소위 '진보 학생운동 진영에 대한 강력 대응 발표'들이다. 경찰은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12개 조적 1백29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명의 두배에

◇ 공안탄압진단 '태백산맥'·'전태일 평전'까지도 이적서적 규정 '국보법'칼날 휘둘러 수구세력·재벌 보호 피해

달하는 숫자다. 이와 같이 '신공안 정국'이라 여겨지는 상황은 지난 5월7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잇단 발표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5월 7일 이수성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치안장관회의에서 "불법 폭력시위와 좌경세력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3일 후에는 박일용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도상치 차도를 정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거나 화염병을 던지고 공공기관을 습격하는 극단적시위 가담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5월 17일에는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이 자유민주제 위협세력 척결을 위한 공안 유관부처 회의에서 "관부처간 유기적 협조 체제로 대공수사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지검 공안부가 27일 '이적표현물 단속반'을 구성, 좌익 인쇄물을 계속 단속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 따라 이미 영화화 된바도 있는 '전태일 평전'과 '태백산맥'이 이적서적으로 규정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이같은 발표들이 5월 한달새 무려 다섯 차례나 이루어졌다.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발표들과 진보 학생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김영삼 정권이 4.11총선 이후 자신감을 얻어 확실한 '재벌중심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진 재벌 정책을 국민적 저항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민노총 출범 첫해에 민주노조진영의 상반기 임금인상투쟁 및 사회개혁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을 체제내화 시키고 변혁적 성격을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막아야한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선별적으로 탄압해서 여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김 정권은 이같은 의도대로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프로 크루스티스의 침대에 비유돼 비난 받고 있으며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철폐가 변방이 요구되는 등 이미 국제적 망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보법

正道경영·초우량 LG

도약 2005

“전용기 대기시켜 주세요!”

꿈의 일터- LG가 실현합니다.

'화상회의로 전세계 지사장들 의견을 종합해보니, 내가 민첩하게만 움직이면 총매출 100억 달러가 걸린 이번 미주시장 판로 경쟁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지금 바로 전용기로 뉴욕에 가서 초일류 경쟁사들과 한판 맞지게 붙어야겠다!

꿈은, 그 꿈을 꾸는 자만이 실현할 수 있다고 하죠?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일할 때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터- 바로, 세계 최고의 일터를 향한 LG의 꿈입니다.

LG는 당신과 함께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꿈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나까요!

◆ PCS 사업체 선정 무엇이 문제인가

'황금알 낳는 거위' 두고 대기업들 '적과의 동침' 불사

재벌위주정책 탈피...국민편의에 초점 맞춰야

"화상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다" SF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 머지않아 현실에서도 일어난다. 단말기 하나로 영상·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PCS사업이 올해 6월말 사업 선정발표후, 국내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통신문화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PCS(개인휴대통신)는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의 약자로 지금 가정에서 쓰고있는 유선전화나 휴대폰, 배배, 휴대통신등이 하나로 통합된 최첨단 서비스를 지칭한다.

업계말해, 일반전화와 이동전화의 합쳐진 형태이며, 현재 이동전화보다 통화품질이 좋은 다음세대 대표적 통신으로, 미래공중통신(FRLMTS: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전화번호를 통해 세계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한 전천후 품의 통신)이 2010년경에 보급되기까지 통신사업의 최대이권 사업으로 급성장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와같은 완벽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98년 국내에 제공되는 PCS는, 초기단계의 설비로 한국이동통신이 제공하는 셀룰러 이동전화와 크게 다를바 없으며, 다만 주파수 내역이 다르고 요금이나 단말기 값이 다소 낮아질 뿐이라고 한다.

이처럼 PCS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뒤진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혈안이 되어 뒤늦게 통신시장에 뛰어들게 된 원인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10년후엔 국내기업자 1천 2백만명에, 5조원 규모시장을 형성하리라는 예상때문이다.

그야말로 사업권을 따내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현대, 삼성, 대우 등 재벌기업들이 지난 3월 6일 '정보통신부의 PCS사업권허가' 발표후 기업내 전문가로 구성된 'PCS연구 전담자'를 꾸리는 등 맹렬히 준비하고 로비까지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6일 '한국통신 자회사 삼정비제조업체 삼비제비 제조업체 구분하여 각각 하나씩 PCS사업권을 허가한다'는 발표후, 장비 제조업체인 삼성, LG, 현대, 대우가 사업권 한정을 권취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 비정비 제조업체 부문도 한솔·효성·대일·금호·중소기업협동 중앙회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간의 통신전쟁속에 주목할



점은 적대관계에 있던 재벌들이 하루만에 태도가 돌변해, 손을 잡는 웃음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허가발표후 며칠 지나지 않은 3월중순에 재계의 양대산맥인 삼성, 현대가 손을 잡는 조유의 사태가 일어난데 이어, 지난 3월 28일 하루만에 증권재벌 두쌍의 커플이 탄생해 버렸다. 한솔·대일 연합인 '한솔 PCS'와 금호·효성연합 '금호PCS'가 그 커플. 이들은 하루만에 태도를 반박해 주위의 반목을 사고 있다.

27일 효성그룹 관계자는 "금호그룹은 아시아나 항공의 적자 때문에 재정상태가 엉망이다. 그런데 어떻게 PCS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일·대우 연합도 "한솔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정 법률 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임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 28일 금호와 효성이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합의하는가 하면, 한솔과 대일도 제휴한다고 전격발표했다. 적과 동침하리라는 PCS사업권은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이다.

또한 '적과의 동침'까지 불사한 이들이 비제조업체 사업권을 두고 싸워야할 적이 바로 유일한 비재벌인 중소기업 협동중앙회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국내 1, 2위를 다투는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이

유는 무엇일까?

95년 7월4일 발표된 정부의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따르면 시내전화와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이 자유화돼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국제전화, 개인 휴대통신(PCS), 무선호출, 주파수공공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사업권을 업체가 올레 안에 선정되며 98년에는 모든 국내 통신사업이 외국에 개방되게 되어있다.

당연히 PCS사업은 재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만한 큰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신대란' '통신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재벌들의 연합과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국 통신장비제조업체로 현대-삼성, LG중 1개업체, 비통신 제조업체로 효성-금호, 한솔-대일, 중소기업연합 중 1개 업체, 기존 셀룰러 업체인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계통신, 한국통신 자회사 이렇게 5개업체가 정보통신사업을 맡게 되었다.

이중 중소기업연합과 한국통신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재벌 사업권 후보로 선정되는 아슬아슬한 현상이 일어났으며, 정부의 배려책이라 판단되면 '한국통신 자회사 선정' 역시 한국통신 노조의 극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 산하 '민영화 및 분할대책팀' 양한웅 팀장(38)은 과거 자회사와 출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과 대일·대우가 재벌들의 손에 넘어간 선례를 들면서 "PCS 자회사도 대기업의 소유가 될 수 있다"며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PCS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한것은 PCS사업에서 한국통신을 배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력산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역시 지난 달 15일 한평노조 간담회에서 마련된 전국대학신문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재벌위주 사업권을 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계속투쟁해 나갈것"이라며 '재벌중심적 사업자선

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같이 PCS사업자 선정자 선정에서 정부가 재벌 편들어주기에 반발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만만치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와같은 정부의 재벌중심정책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98년 WTO(세계무역기구)체제출범에 맞추어 미국이 NGBT(기본통신협상)와 한미통신협상을 통해 지속적 개방 압력을 우리 정부에게 행사한데 있으며, 지레 겁먹은 정부가 자본구조가 안정적 인 대재벌에 세를 풀어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98년에 발표되는 WTO통신협상 공동규칙은 스어는 나라 업체든 다른 나라의 공동통신망을 경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스기존의 통신업자가 배타적이고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삼고있다.

미국의 주장이 거의 반영된 WTO통신 협상을 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플라도 EC보다 이르게 개방시기를 98년으로 앞당겼으며, 개방 2년을 앞둔 올해에 재벌을 PCS사업자로 선정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6월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 4월 26일정보통신부가 발표한 'PCS사업자 선정기준'은 여러가지면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업체의 사업능력, 재정능력, 기술개발 계획의 우수성, 업체의 도덕성'등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특히 "신정체제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권의 할당은 도덕성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은 우리를 아연하게 했다.

"검은 돈의 산실인 재벌을 도덕성으로 평가하겠다"는 어중잡은 지침으로 통신개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한누리기자)

◆ 어학연수 진단

준비부족·임시코스 선택은 '허송세월' 학교주관 연수프로그램 강화 필요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다'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영어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을뿐 아니라 회사의 진급시에도 '토익 0점 이상'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다닌다. 10살 미만의 초등학생부터 50대의 기업 간부후보생에 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국어 열풍'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곧 사회에 진출할 대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거나 휴학을 해서 어학연수를 떠난다. 어학연수는 유학과는 달리 비교적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고, 학점이나 영어성적에 상관없이 갈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생들은 대부분 사설대행사를 찾는다. 이곳을 찾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 서울에만도 이런 대행사가 3백여개가 있어, 본인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종합대학의 부설어학연수원이나 사설어학연수원, 전문학원에서 개설한 연수원등 자신이 원하는 연수기관을 택할수 있으며, 사설 연수원의 경우 교육기간도 1~2주에서 몇년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사전준비가 부족하면 수준미달의 사설학원을 소개받거나 정식연수가 아닌 임시코스에 편성될 우려가 있다.

두번째로 각 학교주관으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들어 각학교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연수비를 파격지원하는등 학생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가 주관하는 어학연수는 각 학교의 자, 매결연대학에서 교육을 받아 수준높은 강의를 들을수 있고, 한양대등의 학교에서는 연수기간의 성적을 졸업이수 학점에 반영하는등의 장점이 있다. 본교 역시 자매대학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세계교장학'을 실시하여 학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가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본교주관으로 지난 1월11일부터 3월2일까지 약3주간 미국 하와이대에서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박찬순(회계·3)군의 말에 따르면 "24시간 영어를 써서 몸이 영어를 익혀야 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어울려 수업을 받으면 아무래도 한국어를 더 많이 쓰게 되어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학교주관의 어학연수프로그램은 대부분 방학중에 실시되어 걸어박아 2달정도 밖에 되지않는점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박찬순 군은 "교육기간이 8주밖에 되지않아 실질적인 영어습득보다는 영어에 대한 감각 익히고 돌아와 아쉽다"며, "최소한 6개월이상은 있어야 연수의 목적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최승일 기자)

동역로

지난 24일 전북대에서는 전화기마다 10여명씩 길게 줄이 늘어섰다. "아빠세요?...어기?...강촌... M.T왔어요...우리과에서 M.T한다고 했잖아..." "엄마야?... 왜 배배 쳐어?... 아냐... 데모 안해... 진짜라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인식은 그저 '데모하는 집단'에 불과하다. 심지어 '다른 동아리에는 다 들어도 한송려에는 절대 가입하지 마라'는 부모님도 있었다니 웃지 못할 일이다. 한송려 출범식 본 마당에서 제4기 한송려의장 정명기 군의 부모님이 무대위로 올라오셨을 때 학생들은 긴장을 했다. 집에계신 부모님 생각이 난 까닭이다. 그러나 "내아들이 자랑스럽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M.T나 학술답사를 핑계로 한송려 출범식에 참가 했을 대다수의 학생들은 몇몇 진한 감동과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유난히 통화가 길었던 한 여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친구에게 하소연을 한다. "엄마가 출범식에 간거 다 안다고 했리요. 이제 집에 가면 큰일났다. 나 어떻게 해..." '데모하는데는 근처에도 가지말라'는 말을 무수히 듣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임현주(교육1)양은 부모님의 말에 공감한다고 한다. "대신자급 공개요구 같은 것이 옳긴 하지만 화염병에 쇠파이프를 들고 정경이랑 싸우는 것은 무섭다"는 현주양. 학생들이 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겠다는 결론에 "그게 이해가 안간다"며 가우뚱한 다.

한송려이 정치적인 시간 뿐만 아니라 학내 복지문제, 교수제, 등록금 인상등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한송려이 정치적인 시간 뿐만 아니라 학내 복지문제, 교수제, 등록금 인상등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김기영 기자)

PCS란 무엇인가

PCS란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의 약자로 간단히 '개인휴대통신'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유선전화나 휴대폰, 배배, PC통신등이 하나로 통합된 최첨단 통신서비스로,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국내외 해외에서도 일 반전화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휴대폰보다 값이 싸고 질도 좋으며 데이터, 영상까지 전송이 가능해 200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전화가 거의 PCS로 대체되어 2005년경에는 가입자 1천 2백만명, 시장규모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티코와 함께하는 건강한 대학문화 캠페인 ③ - 서울대 만화동아리(그림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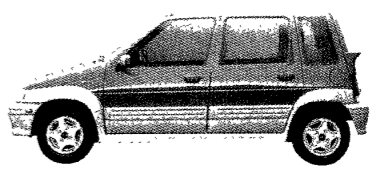
지성과 자기소신이 살아숨쉬는 건강한 대학문화를 위해 경차문화보급에 앞장서는 티코가 함께합니다.

“썰렁한 X세대는 가라”



틈만 보이면 뭔가 보여주고 싶어 안달하는 과시족, 두리번 두리번 소신없는 눈치족, 이런 X세대는 정말 썰렁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주장이 있는 X세대— 진짜 우리 모습 아닐까요?

허세 없는 차—티코



TICO
나는 나, 티코를 탄다.

이 너은 각 대학 만화동아리들의 글과 그림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대학내의 '책' 문화 혹은 소신없는 눈치족을 소재로 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화동아리와 일반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소: 주주·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 2동 426-1 대우자동차 빌딩 4층 광고관측팀 건강한 대학문화 캠페인 담당자 앞 전화번호: 032-510-4436

③ 대중문화시대의 TV읽기

엘리트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적 삶의 맥락으로 파악

대중문화읽기

- ①한국 대중문화의 이해와 전망 - 김찬호(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사)
- ②영상문화의 새로운 전개 - 장영일(영화감독)
- ③대중문화시대의 TV읽기 - 손병우(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제목에서 대중문화 시대의 텔레비전 읽기라고 했지만, 텔레비전에 그 대중문화 시대를 이끌어온 측면이 강하기에 이 제목에 대하여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대중문화가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로 된 상황에서 되돌아본 텔레비전 즉, 그동안 소모적 행위 또는 필요악 정도로 치부되어온 텔레비전 시청을 하나의 문화적 행위로 재인식하는 뜻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방송문화 혹은 텔레비전 문화는 두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작게 보아서 방송문화라고 한다면 방송사 내의 제작문화를 일컫는다. 즉, 방송사 마다 제작여건과 관행에 독특한 차이를 보일텐데, 그것이 제작진들의 창의적 시도를 고무하는 성격 또는 지니고 있는 기성 방식에 안주하게 만드는지, 혹은 흥행성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품위와 교양성을 중시하는지, 또 정치적 측면에서 독립적인지 종속적인지 하는 등의 제작 문화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보아서 방송문화라고 하면 방송이 사회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기능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방송은 이윤 획득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면서, 사회적 의미의 유통 채널이자 동시에 그 의미 생성의 기반이 되고 있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체험하는 즐거움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방송문화는 이렇게 한 사회의 문화 구성의 한 요소로서 방송의 역할을 얘기하는 동시에 수용(시청)자와 맺는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성격을 뜻한다. 그래서 방송문화를 이야기할때 반드시 수용자들의 의미생성과 정서적 체험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텔레비전 읽기'라 불리는 실천의 의의도 여기에 비롯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텔레비전에 접근하는 입장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규범적 접근으로서 텔레비전의 내용을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흔히 퇴폐적이다, 선정적이다, 폭력적이다 혹은 더 포괄적으로 비

교육적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들이 이런 관점을 대표하는 반응들이다.

둘째는 법적 접근으로서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방송 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상충을 빚는 인권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세째는 미학적 접근으로서 흔히 프로그램의 완성도로 편리하게 얘기되는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즉,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영상, 음향 등의 적절한 사용과 그 효과의 극대화를 기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런 자세는 연기자 캐스팅의 적절성 여부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의 관점들은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아주 관습적인 측면에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들로서, 그 기본 성격은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텔레비전에 접근하고자 할때 이런 규범적, 법적, 미학적 입장에 외에 텔레비전 시청이 갖는 해도 자신의 상황은 그것과 다르며 그래서 다름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생각은 두번째 타협적 해독을 한 것이된다. 일탈해독은 그런 거부감적 접근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보고 오히려 여성주의적 드라마로 달리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텔레비전 읽기의 수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면 속에 펼쳐지는 삶 사이의 교류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읽는 수준은 몇가지 복합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담겨있는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의미 해석을 내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해석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시청자들은 오히려 프로그램이 담고있는 의미를 정반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양상을 지배적 해독이라 부르고, 두번째 것을 타협적 해독, 그리고 세번째 것을 일탈해독(aberrant decoding)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적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고, 남성 중심성에 공감하는 시청자들은 지배적 해독을 한 것이고, 남성 중심성에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그 생각이 두번째 타협적 해독을 한 것이된다. 일탈해독은 그런 거부감적 접근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보고 오히려 여성주의적 드라마로 달리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텔레비전 읽기의 수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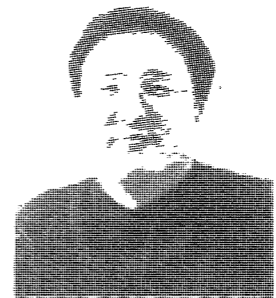
텔레비전은 이중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동안 대중문화의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온 연구들은 텔레비전과 관련해 볼때 앞서 얘기한 시청자들의 지배적 해독의 위력을 중시해온 감이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정치적 무관심의 유발과 갈등의 허위적 해소 등을 통해서 현상(status quo)유지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그 정반대편의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일탈해독의 가능성이고, 시청자들의 전환적 창조성이다.

비록 대중매체 특히 그 대표적으로 가장 광범한 도달 범위를 자랑하는 텔레비전은 권력의 시나리오는 그간의 별명인 대변하듯 체제유지를 위한 기능을 하는데 동원되어 왔지만 동시에 흥행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흥행 요소를 과잉되게 포괄함에 따라 그런 이념적 기능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존재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 시대의 텔레비전은 결코 정의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텔레비전 자신이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그 기호들을 자기 나름대로 변화시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호학적 민주주의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손 병 우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방송평론가)

달 하나 천 강에

죽은 의식



어떤 사람이 모스크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두 명의 소련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일하는 것을 톨스토이 바라보고 있었다. 두 명의 노동자들 중 한 명은 연신 삼포구 구멍이 파면서 앞으로 가고, 잠시 후 다른 노동자는 앞의 노동자가 파 놓은 구멍이 파면서 다시 메우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은 이상해서 두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노동자同志们, 지금 밟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파고 또 한 사람은 매우나 헛수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원래는 다른 노동자 동지가 우리를 중간에서 나무를 쉽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집에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야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늘 갖고 다니는 보드카를 병째 쪽 돌이키고 "모스크바 교외의 저러"이란 혁명가를 흥얼거리면서 어깨에 삼을 둘러메고 돌아갔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은 어이가 없어 그들의 뒷모습을 톨스토이 쳐다보았다. 그들이 일하였던 가로에는 땅을 파고 다시 메우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중국의 북경성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셋이 모래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모래를 수레에 퍼 담고 있을 때, 나머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수레의 손잡이를 앞에서 끄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수레의 뒤를 미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동지들, 아니 왜 다른 동지는 보고만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각각 다릅니다. 저 동지는 모래를 퍼 담는 것이 임무고, 나는 앞에서 수레를 끄는 것이 임무고, 이 동지는 뒤에서 미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나 각각에게 맡겨진 임무를 해야 다른 사람의 임무까지 하면 비판받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 모래를 다 실자, 옆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모래를 퍼 담았던 사람은 삼만 톤 그들을 쫓아가면서 "동방의 붉은 별"이란 혁명가를 부르며 유유히 사라졌다.

위의 두 삽화는 사회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특징 중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고용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일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이때 만약 남의 일에 관여를 하게 되면 비판받게 된다. 한편 임무를 지칭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에게 부여된 일만 관심을 갖지, 남의 일이 나 그 일 전체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체제의 속성으로 인한 이런 관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의 의식도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다. 삽화 1에서 소련의 두 노동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헛수고인 줄 뻔히 알고있지만 오로지 자기 임무에만 관심을 갖는 일이다. 삽화 2에서 중국의 노동자도 세 사람이 함께 모래를 싣고 함께 수레를 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임무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의식이 경색된 것이다. 이를 중국에서는 "죽은 의식"이라고 한다. 이 삽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경색된 의식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김 영 철 인문과학대 영어통번역과 교수

서평 '지배와 이성'
황태연 교수(정치외교학) 저
소유권 중심 맑시즘 재해석
'논쟁적 글읽기', 자본주의 현실분석 돋보여

책이 출판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 두툼하고 조그만 활자로 가득찬 이 책을 읽기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으로 백백히 들어간 이 책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읽으려는 더욱 만무하다. 따라서 출판 이전의 원고를 가지고 지난 6개월간 저자와의 세미나 덕분에 이 글을 쓸 수 있음을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배와 이성'을 읽는데는 몇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중 우선으로 들고 싶은 것은 '논쟁적 글읽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 교전을 읽다보면 자칫 그 내용에 빠져 왜 이 글을 읽는지 의문점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마치 찰흙 산중에 빠져 들어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와 같다. 이런 의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논쟁적 글읽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배와 이성'은 이런 점에서 아주 탁월하다.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에 배가 답하는가 하면, 마르크스가 풍부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배가 심화·발전시키기도 한다.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가 배와 마르크스를 현대에 맞게끔 보충해 주기도 하고, 살아있는 허버마스가 다시 죽은 마르크스의 비판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복잡한 미공에

서 벗어나고자 할 때 아리아드네의 실이 필요하듯, 사회과학 원전을 읽을 때는 '논쟁적 글읽기'가 필요하다. '지배와 이성'은 논쟁적 글읽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효하다.

이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지배와 이성'은 원전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현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원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국내에서는 전혀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서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한 재해석을 들 수 있다. 노동은 정신노동과 물질노동으로 나누어지고, 물질노동은 두뇌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다시 분화된다.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한 윌리히의 기존 해석은 완전히 부정되고 패배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이 문헌적인 분석만으로 끝났다면 현실적인 의미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풀 수도 없을 것이다. 노동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현실분석으로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스탈린식의 '노동자-농민의 인테리'라고 하는 이상적 방법을 추구했던 사회주의 소련이나 마오쩌둥주의 '인테리제'라는 극악적인 방법을 썼던 사회주의 중국이 왜 잘못되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원전을 현실에 맞게끔 해석한 또 다른 예인 동시에 저작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외연적 확대 재생산과 내포적 확대재생산은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자본의 축적 양식의 문제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두 재생산 방식은 논자에게 있어서는 공해문제와 관련하여 '소재(素材) 경제적 발전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외연적 확대재생산은 역학적 기제화에 기초한 과거 성장위주의,

심찰케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와 관련된 대학 학과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일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정무하였다. 왜 이러한 기업들이 발생했으며, 성황을 이루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글을 잡지책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지배와 이성'은 이러한 현상을 '물리적 폭력' '독점의 합법적 구조'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이해없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점에서 국내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와 이성'은 현대의 무수히 복잡한 논쟁과 관련된 많은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지배와 이성'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해 불가능한 전문용어로 가득차 있다. 이 점에서 독자의 책임감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시선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체가 있다. 덧붙인다면 두꺼운 책읽기를 싫어하는 독자의 신체대응의 독서습관이 이를 더욱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한 여름 무더위와 싸우기 위해서, 시원한 도서관을 찾아 싸워볼만한 만한 책으로 '지배와 이성'을 추천할 만하다.

이 남 석
(본교 강사·정치학)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출자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대의원 총회 4년만에 성사

총학생회칙 부분 개정 등 의결

경기 대의원 총회가 92년 이후 4년만에 성사됐다. 매년 한화기에 한 번씩 치뤄지는 대의원 총회는 그 동안 정국수 미달로 인해 무산됐으나 지난 28일 치뤄진 이번 총회는 2백32인의 재차 인원중 3분의1이 넘는 8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 오랜 과정에 남아 있던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을 해결 지냈다. (표 참조)

총대의원회 의장 권성국(컴공4)군은 "준비기간이 부족했음에도 열심히 일해준 대의원들에게 고맙다"며 "이번을 계기로 총대의 위상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위상강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학생회칙 부분개정 외에 새터 선정 감사와 예비조직 감사 등의 상반기 사업평가와 1학기 학생회비 예산분배의 결과보고 및 의결이 있었다. 또 중앙주변 성역화 운동 등 총대의원회의 이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 1학년생 대의원은 "총학생회칙을 한번도 읽어 본적이 없다"며 "솔직히 회칙개정에 대한 부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총학생회칙 개정안)

제1장 학생총회	참가:제13조(소집) 6. 정국수 미달시에는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하여 총회로써 시행할 수 있다. 참가:제14조(의결) 2. 총회로써 의결과반수 투표와 2/3 찬, 반대로 의결한다.
제2장 학생대표자회의	참가:제15조(구성) 학생대표자회의는...학생부지위학생, 졸업준비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조직:제16조(권한) 2.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 참가:제18조(권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조정, 제출된 '총노선'의 심의, 의결권 참가:제19조(의결) 1. 학생회비를 책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참가:제20조(의결) 1. 학생회비를 책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제4장 집행부	참가:제21조(의결) 1. 집행부:본회의 집행부임을 총회로써 결정한다. 조직:제22조(조직) 총학생회칙을 집행한다. 참가:제23조(권한) 총학생회칙을 집행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조직:제24조(조직) 1.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칙을 집행하는 감사위원을 추천한다. 조직:제25조(조직) 1. 감사위원은 총학생회칙을 집행하는 감사위원을 추천한다.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제26조(조직)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을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다. 조직:제27조(조직) 1. 선거관리위원은 총학생회칙을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조직:제28조(조직) 1.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조직:제29조(조직) 1.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대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1학기말 학사일정 확정

성적확인·정정기간 등 유의해야

96학년도 1학기 공식학사일정이 오는 26일 학기종료를 끝으로 마감된다.

이후 성적처리에 관한 일정은 △ 성적공시=6월 28일 △ 성적처리=7월 3일부터 9일까지 △ 성적표 발송=7월 10일 △ 성적 정정=7월 15일,

16일이며 졸업에 관한 일정은 △ 졸업사정=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 졸업사정회의=8월 6일 △ 학위증 특신청=8월 12일로 결정됐다.

학작과의 이수통계장은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대로 시행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러 말했다. 또한 학생들은 내달 15일과 16일 사이 2번의 성적 정정기간을 활용, 학사행정처에 자질을 낮추지 않게 일정에 맞춰 성적을 정정할 것을 당부했다.

반교육정권 타도 투쟁결의 대회

무책임하고 일관성없는 정책 비판

지난달 31일 서울 산업대학에서 광국적 5·31교육개혁안 분쇄와 반교육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정=정명기·전남대 이하 한총련)의 주최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의 서울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들이 참가했다.

정명기 한총련의장은 "김영삼 정권의 민족과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절대적명목의 과제가 없는 교육개혁은 무국적 학생을 양산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은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 말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안으로는 대학총합 평가인정제 등으로 대학을 옥쇄하고 있다"며 "양국적 5·31교육개혁안을 분쇄하고, 교육개발을 저지하여 민족자주교육을 이룩할 것"과 "부패정권 반교육정권 김영삼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문을 통해 밝혔다.

또, 김경호 동아대총학생회장은 "대학자본화와 대학의 의지에 의한 대학설립 등 무책임한 정책으로 우리 대학을 죽이는 김영삼 정권의 허상과 교육정책 확보 회피로 민족에 대한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폭력은 민중들의 투쟁으로만 분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천행사로 거리선전전을 벌이려 했으나 경찰들의 강경진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목먹골' 식당 10일 개관

아리수도 함께

지난 4월1일 개관할 예정이었던 학술문화관 식당 '목먹골'이 오는 10일 문을 열게 된다.

명칭가든을 운영하는 '(주)코리아 케터링'이 위탁운영하게 될 목먹골은 2백80명 정도의 규모로 다량급식당 '늑대'보다 약 80명이 더 큰 규모다.

교직원 전용식당으로 이용될 목먹골은 고가의 식재료로 인해 학생들의 식당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활)의 한 관계자는 "식비가 3, 4천원 정도로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가격부담이 클 것"이라 말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 설립에 협의를 학술문화관에 간단한 매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예정 공대 독서실 자리에 위치한 '아리수'(구 원효가든)도 오는 10일경 선보일 예정이다.

위치와 위생시설등 여러문제가 신중해 있던 아리수는 생활에서 직접 운영한다.

아리수는 위치상의 문제로 발표되는 분식위주로 편성할 예정이며, 그 외 약간의 문구류도 배치할 계획이다.

김용정교수 강연회

김용정(철학)교수의 정년퇴임 기념 고별강연 및 출판기념회가 오는 4일 학술문화관 증극장에서 열린다.

김교수의 저서로는 '과학과 철학' '과학과 불교' '칸트 철학' 등이 있으며, 이 책들은 강연 참가자들에게 증정될 예정이다.

강연회는 교수 약력소개와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보고 불교학창단의 축가와 만찬이 이어진다.

생활협동위원회 연기

학교측과 약정 불일치로

대학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활) 9차 운영위원회의가 오는 10일 오후 4시 생활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생활과 학교측과 약정 불일치로 연기됐다.

정관시안 수정, 생활과 학교측과의 약정, 임대 업체 계약, 생활 창립약정, 임대업체계약, 생활 창립총회 일정등을 논의하게 될 이번 회의는 10일내에 일정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설명회

대림그룹·동아건설

취업과(과정=김철서)는 오는 7일과 10일에 대림그룹과 동아건설의 취업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

대림그룹의 취업설명회는 7일 오후 3시 입학관(E306)에서 실시하며, 동아건설의 설명회는 10일 오후 1시부터 동극관(L101)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96년 하반기 졸업예정자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취업과 계장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과소식

- 연극영화학부**
학술문화관 증극장에서 4학년 졸업공연 '갈매기'를 6월14일부터 23일까지 상연한다.
- 미술학부**
1학년의 작품을 전시한 과제전이 오는 6월3일부터 7일까지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반도체학과
사회학과
손영우군(사회96졸)과 박노현군(국문3)의 영치자금 모금을 위한 일일호프가 오는 7일 동극호프에서 열린다.
- 경찰행정학과**
오는 19일부터 5박6일동안 서울·평택·대전·대구·울산·부산을 거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사이클루트 일주를 실시한다.

화전무대

학구열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요즘, 부쩍 열심이 공부하는 학우들 많은데 그 정도가 과하기도 한다고.

다름아니라 강의를 받을때 그 수업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게 다른 수업교재를 들고 들어가 공부한다는 것.

강의하시는 교수님 눈치보라 다른 공부하라 는느릴기 바쁜 학우들.

이름 본 화전무대자 알 "그런 바라치기공부는 바람맞을 일!!"

유치찬란

○...유치찬란 전국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2002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로 만장일치 결정됐다는데.

소식 전해들은 한 학우 부트르 펠며 분노하는데 "공동개최, 공동개최 하고 싶더니, 남·북공동개최는 어디가고 한·일 공동개최라 말 마나"

옆에 있던 화전무대자 흥분하는 학우 달려며 하는 말 "유치차라 유치차라 했더니, 정말 유치하게 유치했어 그래"

있으나 마나

○...이 언덕을 넘으면 저 언덕이, 그 언덕뒤엔 가파른 비탈길.

이 상황을 잘 아는 학교측에서는 여학우들과 몸이 불편한 학우들의 등고길을 위해 아침에 중문에서부터 교내 곳곳으로 커다란 버스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그러나 실제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한 번에 2~3명뿐. 게다가 학교의 홍보부족때문인지 이 버스의 운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학생도 부지기수.

본 화전무대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먹을까 말까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학우들 기본적인 식사예절조차 지키지 않는다는데

다름아니라 단지 식사를 한 후 흘린 음식물 등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뛰어난 학우 식판을 들고 이리저리 자리를 찾아 헤메이지만, 각 탁자 위에 어지러워 흩어져 있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식욕이 절로 떨어진다고 울며겨자 먹기로 방치된 음식물을 치우는 한 학우 한마디, "안러자니 배가 아쉽고 먹자니 비위가 아쉽고(!)"



◇ 페허... 인문대학은 자치공간 확보를 위해 명진관앞에서 천막을 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반해 어떤 학생회실은 차라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사진은 지난날 31일 이과대 모학과 학생회실 모습. (이태훈 기자)

교직원 건강진단 검사

을지로 백병원서 10일부터

96년도 교직원 건강진단 검사가 인제대부속 백병원에서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매년 제일병원에서 검사를 해 왔으나 병원측의 시설 미흡과 이해관계로 인해 이번 검사는 백병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건강진단은 처음으로 성인 병검진과 초음파 검사를 종합검진과 더불어 실시하게 된다.

검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남자직원= 10일 오전부터 11일 오후까지(단, 전산원 40세미만 직원은 13. 14일 오전) △남자교원= 12일 오후부터 14일 오후까지 △여자교원= 12일 오전 △위 일자에 미수검한 자= 15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9월 30일까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야총 비상전학대회

학회실 생활도서관 요구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 구경주, 정영4 이하 야총)는 오는 5일 비상전학 학생대표자 회의를 열어 1차 투쟁을 총화하는 자리를 갖는다.

현재 야총은 신방과, 광고학과, 반도체학과와 실습실과 각종 기자재를 학교측으로부터 약속받았고 기존과의 동일한 층에 신방과, 광고학

과, 반도체학과와 학회실을 배치할 것과 생활도서관 마련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야총은 중강사업으로 6월 중순에 1학기 사업평가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발행할 예정이고 방송사업으로 선전·문제해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산정보에 강하자 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1996학년도 전산·정보교육과정(2기) 모집

1. 모집인원: 주간 1반 야간 2반(1개반 40명)

2. 모집구분 및 교육기간

구분	강의요일	강의시간	교육기간
주간	주 2일	14:00~17:00	4개월(16주)
야간	주 2일	18:30~21:30	9.10.11.12월

3. 모집대상: 기업체 및 공공기관 경영자 및 관리자, 자영업체 경영자, 주부 및 여성전문직 종사자

4. 교육과정 특징: 전산/정보 비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교육, PC기초에서 멀티미디어, 인터넷까지 실습위주의 수업, 관리자 및 경영자를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 최첨단 컴퓨터시스템 및 초고속통신망, 최첨단 영상강의 시스템, 비전문가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교재, 일본 및 호주 자에대학 해외 단기연수 기회부여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원서접수: 1996. 6.24(월)~7.5(금) 09:00~19:00 (토, 일요일도 접수함),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6. 모집방법: 입학예약순(등록선착순)

7. 입학문의: ☎ 260-3522-3, 260-3598, 264-0502 FAX 264-0504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26

전자계산원

공 고

'96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96. 6. 12(수)~6. 14(금) 3일간

2.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과과, 학부(과)·계열

3. 대 상: '96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전원

4. 유의사항: 가.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모든 재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다. '96학년도 2학기부터 1학년 대상 교과목을 신청한 2, 3, 4학년 재학생도 성적 상대평가제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라. 제2학기 개인별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부(과)·계열에서 교부받기 바람.

교무처장

낙산학사 이용 안내

'96년도 하계기간 동해낙산학사의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아 래 -

1. 개강기간: '96. 7. 1(월) - 8. 18(일)

2. 시설현황: 서울캠퍼스: 7실, 경주캠퍼스: 3실 (1실 20인 수용가능)

※ 취소 및 취소도구는 개인별 지침

3. 신청자격: 본교 재학생

4. 신청기간: '96. 6. 17(월) - 6. 20(목)

5. 신청요소 및 선정방법: 각 캠퍼스의 학생과, 매회차별 선착순

6. 신청예약금: 1실당 10,000원 (신청서 제출시 납부)

7. 일표표(1회 - 16회 매회 3박4일)

1회 7.1-4	2회 7.4-7	3회 7.7-10	4회 7.10-13
5회 7.13-16	6회 7.16-19	7회 7.19-22	8회 7.22-25
9회 7.25-28	10회 7.28-31	11회 7.31-8.3	12회 8.3-6
13회 8.6-9	14회 8.9-12	15회 8.12-15	16회 8.15-18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나 관재과로 문의 요망함.

관 리 처 장

환전은행 선택이

알뜰여행의 성패 결정

-대학인을 위한 특별환전서비스-

지금은 환전은행 선택이 알뜰여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조흥은행은 대학생의 배낭여행을 겨냥한 과격환전을 실시하고 있어 이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기업으로 기네스 기록에도 올라있는 조흥은행은 100주년을 맞이하여 2년 연속 은행경영성적 국내 1위의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구촌시대의 젊은이를 위한 테마상품으로 '대학인을 위한 특별환전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대학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1. 기 간: 1996. 5.1~8.31(4개월간)

2. 우대내용: 환전규모에 따라 현찰 최고 3원/US, 여행자수표최고 15원/US까지 환율할인

3. 대 상 자: 대학(원)생 교수 및 인직원

4. 준 비 물: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5. 취급요소: 조흥은행 동국제출소

조 흥 은 행

